

경복궁 경회루의 건축계획적 논리체계에 관한 연구

- 정학순의 「경회루전도(慶會樓全圖)」를 중심으로 -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 인 철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 경회루, 경회루전도, 정학순, 풍수, 주역, 육육양제법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경회루는 경복궁내에 있는 주요 건축물의 하나로서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축물이다. 전통 건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건축물의 계획적인 측면에서, 기타 여러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다. 본 논문은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이 건물이 어떤 논리 체계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회루의 계획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학순(丁學洵: 생물연대 미상)이 작성한 「경회루전도(慶會樓全圖)」가 있다. 「경회루전도」는 한국 전통건축의 건축 당시 건축의 의도나 계획원리를 밝힌 문헌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경회루전도」에 대한 기존 연구¹⁾를 바탕으로 경회루의 계획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본 논문은 「경회루전도」와 실측도면을 근거로 동양철학적 내용과 경회루의 건축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회루전도」에 나

타난 경회루의 계획 원리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 의도와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하였다.

1-2 예비적 고찰

(1) 「경회루전도」

「경회루전도」는 고종 2년(1865)에 정학순이 썼으며²⁾ 그 시기는 경회루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³⁾이다. 즉, 정학순의 「경회루전도」는 음력으로 1865년 말에 '서(序)' 부분이, 1866년 초에 '발(跋)' 부분이 써진 것이다.

글을 쓴 것이 경회루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⁴⁾ 「경회루전도」는 공사를 위한 도면과 설계 의도를 담은 지침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회루전도」는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꿩맞추

2) 「경회루전도」는 서(序), 법례(凡例), 발(跋)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는 성상 2년(1865) 을축, 납평후(臘平後: 1865년 동지부터 세 번째 미(未)의 지지(地支)가 나타나는 날로 다음 해 정월 또는 2월) 2일, '발'은 그 다음 해인 병인 경칩(1866년 3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3) 경회루 공사 시기에 관한 내용은 「경복궁영건일기」에 “경회루의 공사 결정을 고종 3년 12월 8일에 하여 정초는 이듬해 고종 4년 2월 7일, 상량은 그 해 4월 22일에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회루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문화재청, 2000. 8.), p.68.

4) 경회루의 초석 공사는 고종 3년(1866) 8월에 이루어졌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두뇌한국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동욱, 「慶會樓, 韓國建築과 周易의 原理」(『건축문화』, 서울: 건축문화사, 1983. 10. pp.42-52)가 있다.

기 위해 억지 논리를 전개하며 쓴 글이 아니라서 점에서 주목된다. 정학순은 경회루가 소실된 터에 가서 기둥 초석의 위치와 개수를 살펴본 다음, 터에 남아있던 초석을 바탕으로 경회루의 건축원리를 찾아낸 것이다.

정학순의 의도는 소실된 경회루의 건축 원리⁵⁾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그것을 재건될 경회루의 건축에 적용시키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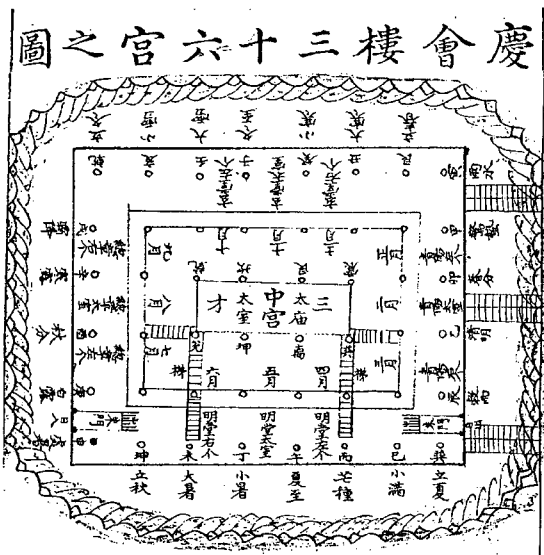


그림 1. 경회루삼십육궁지도(「경회루전도」 8쪽: 와세다대학본)

「경회루전도」의 ‘발’ 부분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을 보면 병인년(丙寅年, 1866) 경칩(驚蟄)에 층의 정성으로 감히 나아가 영건소(營建所)에 헌(獻)한다는 글이 있다. 초야(草野)의 신(臣)으로서 정학순이 경회루의 공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초야⁶⁾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정식 직책을

부여 받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나 어떤 식으로든 영건소와 인연을 맺고 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쉽게 추정이 된다. 따라서 그가 경회루의 건축에 자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가 쓴 「경회루전도」는 경회루의 건축에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경회루전도」는 현재 필사본이 두 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일본 와세다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책은 내용과 구성방식이 거의 비슷하나, 와세다대 소장본이 중앙도서관의 본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⁷⁾ 두 필사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김동욱의 연구에 의하면 와세다대학 소장본(이하 와세다본)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국립중앙도서관본(이하 중앙도서관본)은 심하게 부식되어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와세다본⁸⁾은 서(序)에서 발(跋)까지 17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8페이지에 ‘경회루삼십육궁지도’가 도면으로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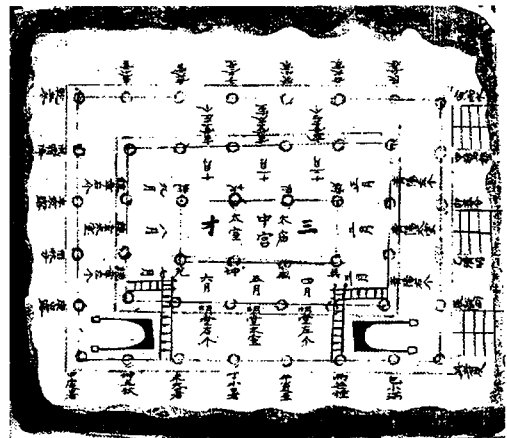


그림 2. 경회루삼십육궁지도(중앙도서관본)

5) 「경회루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문화재청, 2000. 8.), p.72. “세상에 전하기를 경회루의 육육궁(六六宮)은 본래 불을 제어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한다. 을축년의 중건이(건물이 소실되고) 많은 해가 지나서 이미 오래된 지라 六六禳除의 법(36宮으로부터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원리)을 밝혀 풀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신이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를 궁급히 여기다가 금년 초에 스스로 집짓는 곳에 나아가서 집터와 기둥 초석을 두루 보고 돌아와서 문을 닫아걸고 역리 연구를 하였다. 여러 달 동안 연구하여 이 그림을 만들게 되었다.”(世傳慶會樓之六六宮, 本爲制火而作, 乙丑之重建, 在於曆年, 既久之後, 六六禳除之法, 有難講明, 臣心竊疑之, 乃於是歲至月之初, 躬詣營建所, 遍觀臺址上柱礎, 退易閉門, 推究易理, 潛思數月, 作爲此圖.)

(2) 경회루(慶會樓)

경회루는 태종 12년(1412)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에는 누각 형식의 작은 건물이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누

6) 초야(草野)라고 지칭한 것이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호’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7) 문화재청, 앞의 책, p.72.

8) 문화재청, 위의 책, pp.78-82.

각의 이름이 경회루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태종 때부터이다. 경회루는 당시 공조판서 박자청(朴子靑: 1357-1423)⁹⁾의 감독 하에 건축되었으며, '경회(慶會), 납량(納涼), 승운(乘雲), 과학(跨鶴), 소선(召仙), 척진(滌塵), 기룡(騎龍)' 중에서 '경회'¹⁰⁾로 이름을 정하고 태종의 명을 받아 하륜(河崙: 1347-1416)이 「경회루기」¹¹⁾를 지었다고 한다. 「경회루기」에 의하면, 경회루는 당시 건축주(建築主)라고 할 수 있는 태종이 생각한 것보다는 규모와 형식면에서 장대하게 건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박자청은 단순히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변명하였다. 태종이 경회루에 여러 원로들을 모시고 잔치를 했다는 것은 경회루 건물 자체가 과분하게 건축된 것에 대해 나무랐다고 하기보다는 왕실과 관련되는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 말했다고 볼 수도 있다.¹²⁾

경회루 건축의 감독관으로서 박자청은 예상되는

9)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總制府事) 박자청(朴子靑)이 졸하였다. 자청은 영해군(寧海郡) 사람이다. . . . 토목의 공역을 관장한 공로로 사졸로부터 나와 1품의 지위에 이르렀더니,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 67세이다. . . . 시호를 익위(翼魏)라고 하였으니, 강극(剛克)으로 발탁된 것을 익이라 하고, 능히 위엄있고 행동이 민첩한 것을 위라 한다. 이들은 박질(朴質)이다.” (세종 5년 11월 9일)

10) “신은 그윽히 논하건대, 경회(慶會)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덕(德)으로써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일 건(乾)의 구오(九五: 임금)에서 그 큰 덕으로서 구이(九二: 어진 신하)의 큰 덕을 잘 만나서, 뜻이 같고 기운이 합하여 그 도를 행하게 되면, 여러 어진 이들이 함께 나와서 국가가 밝고 창성할 것이니, 이른바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범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5.), p.51.

11) 하륜의 기문에 “ . . . 그리하여 공조판서 박자청 등에게 땅을 헤아려 조금 서쪽에 옮기고 그 터에 제도를 넓혀 새로이 하고, 또 그 땅이 축축한 것을 염려하여 누각을 둘러 못을 만들었다. 공사를 마치자 다시 거둥하여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는 옛 모습 그대로 수리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옛 제도보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셨다. 이에 자청 등이 앞드러 대답하기를, ‘신들은 뒷날 또 기운이 위태할까 걱정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종친(宗親), 공신(功臣), 기로(耆老)들을 불러모아 함께 즐기고 누의 이름을 ‘경회’라 하였습니다.” 위의 책, pp.50-51.

12) 태종실록에 의하면 박자청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나온다.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누각(樓閣)과 못(池)을 보고 승자리를 배풀어 감독(監督) 제조(提調) 박자청(朴子靑) 등을 위로하였는데, 종친과 부마(駙馬)가 참여하였다. 또 역도(役徒) 대장(隊將)·대부(隊副) 등 6백여 사람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태종 12년 4월 11일)

질다¹³⁾를 무릅쓰고 본래 있던 조그마한 누각을 헐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건축물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후 경회루는 임진왜란(1592)으로 소실될 때까지 성종 때(1475)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고, 중종 때 기와를 고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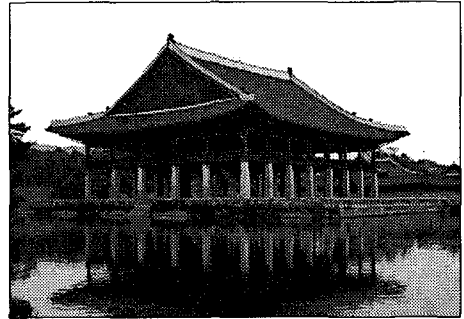


그림 3. 경회루와 연못 전경

경회루는 시기에 따라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 박자청이 처음 경회루를 건축할 당시는 경복궁내의 화재 진압을 위한 저수지의 기능을 갖기 위해 연못을 크게 조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박자청의 입장에서는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하게 물을 공급할 수원(水源)의 확보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복궁의 규모와 경복궁을 둘러싼 연못의 규모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궐내의 연못인 만류 저수지로서의 기능적 측면 외에 격식과 품위도 갖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연못의 크기와 조화를 이루는 규모의 누각을 계획했을 것이다.

경복궁내의 친수공간(親水空間)으로서의 경회루 영역은 ‘물’이라는 부드러운면서도 신성한 대상이 있는 곳으로써 임금과 신하가 연회를 여는 곳(君臣宴會之所), 중국 사신을 접대 위로하는 곳, 기우제를 지내는 곳, 무예를 관람하는 곳, 경(經)을 강술하게 하는 곳, 유생들이 시험을 보는 곳으로, 때로는 여흥(餘興)의 공간으로, 때로는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2. 본론

2-1. 건축이론으로서의 육육양제법과 36궁

13)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종 7년부터 세종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박자청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태종의 신임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1) 수(水)와 육육양제법

태종 때의 경회루 건축은 습한 대지 위에 기울어진 누각을 보수하라는 요구조건에서 출발한다. 경회루가 위치하고 있는 영역은 경복궁내에서 서측으로, 북악산아래 물이 고이는 골짜기 부분에 해당한다.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경사가 급하지 않은 평지에 다다르게 되면 넓게 퍼져서 퇴적토와 함께 합쳐져 습지를 만들게 된다.

박자청은 이러한 지형을 읽고 우선 인공으로 연못을 파서 물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더불어 경복궁의 규모를 고려한 담수량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 결과 연못의 크기가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적 큰 규모의 경회루 연못을 조성하게 된다. 궁궐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자로서 연못의 크기는 당연히 그런 정도가 되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그에 어울리는 경회루의 규모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연못의 크기가 반영된 경회루의 규모는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보다도 더 큰 규모의 건축¹⁴⁾이 되어야 할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박자청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기능과 안전의 측면에서 경회루 일곽의 계획을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 연못과의 조화를 위해서 상식 이상의 큰 규모의 누각건축을 해야 할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형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책임 추궁과 반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건축계획적인 측면의 논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박자청은 후에 창덕궁의 인정전 일곽을 잘못 건축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¹⁵⁾ 예나 지금이나 건축이 왜 그렇게 지어지는가에 대한 건축계획적인 이유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나 주변인에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회루의 건축 내용은 태종 12년(1412)에 박자청에 의해서 지어진 지 450여년이 흐른 뒤에 정학순에 의해 재해석되어 「경회루전도」(1865)라는 기록으로 남게 된다. 경회루 건축 당시(태종 시기)의 기록에는 「경회루전도」와 같은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경회루의 건축 개념이 경복궁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기록으로 남긴다는

자체를 금기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당시 어느 정도 학문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암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회루 계획의 기본원리는 「경회루전도」의 ‘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육육양제법(六六禳除法)’이다. 여기서 육육양제법이란 ‘6’이라는 수의 가감승제(加減乘除)에 의해서 펼쳐지는 신비스러운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왜 ‘6’이라는 숫자가 동원되었나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6’은 하도에서 북쪽에 있는 방점 여섯 개가 찍힌 것을 말하며 ‘물’을 뜻하는 숫자이다(그림 4. 참조). 그것도 작은 물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물’인 것이다. ‘성숙한 물’이란 경회루를 감싸고 있는 ‘연못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회루 건축은 연못의 규모 설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육양제법은 남아 있는 초석에 대한 해석 뿐 만아니라 초석 위에 세워진 건축물의 전체 구조까지도 연결시켜 복원해낼 수(數)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6’이라는 숫자가 계획의 근간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과정은 실타래가 풀리듯이 연결되는 원리가 해명되는 것이 육육양제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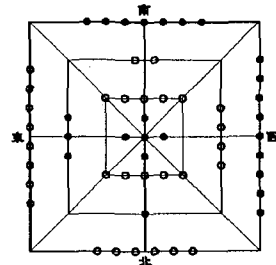


그림 4. 하도(河圖)

(2) 육육양제법과 36궁

「경회루전도」에 포함된 도면의 명칭이 ‘경회루 삼십육궁지도(慶會樓三十六宮之圖)’이다. 정학순이 소실된 경회루 터에 나가 초석만 놓인 상태를 보고 경회루가 본래 화기(火氣)를 제압하기 위해 지어진 누각이며, 그 원리는 육육양제법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육육양제법에서 나온 6곱하기 6으로서의 36궁이 무엇이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6궁은 『주역』의 64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위 선천역(先天易)¹⁶⁾이라고 하는 복희역(伏羲易)

14) 경회루의 1개 층 면적은 288평 이고, 근정전은 197평임.

15) 세종실록 세종 원년 4월 12일조 참조.

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정학순은 「경회루전도」의 서(序)에서 이 원리의 일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取象於大易之三十六宮，
云夫易之道，與天地準易之理，
與天地合，聖人分而爲六十四卦，
並三十六宮，自乾坤坎離，至頤大過中孚小過，
其不變者八，自屯蒙，至于既未濟，反對者二十八，合
八與二十八，是爲三十六宮，而其實六十四卦，
皆在其中矣。

以八卦之位言，之一乾二兌，三離四震，五巽六坎，七
艮八坤，合爲三十六
以八卦之爻言，之乾三兌四，離四震五，巽四坎五，艮
五坤六，亦爲三十六¹⁷⁾

정학순은 건괘(乾卦: 重天), 곤괘(坤卦: 重地), 감
괘(坎卦: 重水), 이괘(離卦: 重火), 이괘(頤卦: 山
雷), 대과괘(大過卦: 澤風), 중부괘(中孚卦: 風澤),
소과괘(小過卦)와 같은 불변괘(不變卦)¹⁸⁾ 여덟 괘
와 둔괘(屯卦: 水雷)와 몽괘(蒙卦: 山水), 기제괘
(既濟卦: 水火)와 미제괘(未濟卦: 火水)와 같이 서로
대¹⁹⁾가 되는 괘 28개를 합하면 36궁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학순은 36궁이 여기서 말하는 36가지
의 괘에만 해당될 뿐 만 아니라, 64괘 모두에 해
당된다고 한다. 그 이유를 그는 「경회루전도」에
서 작은 글씨로 설명하고 있다. 즉, 복희팔괘차서
도에서 태극에서부터 갈라지는 순서에 따라 위치
가 매겨지는데, 그 번호 순서를 더하면 36궁이 된
다. 즉, 일건(一乾), 이태(二兌), 삼이(三離), 사진
(四震), 오손(五巽), 육감(六坎), 칠간(七艮), 팔곤
(八坤)을 합하면 36궁이 된다.²⁰⁾ 이는 또한 다르게
설명될 수도 있는데 팔괘의 괘 하나를 이루는 효
의 수(양효 - 일 경우: 1, 음효 - 일 경우: 2)를

합하여도 36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양효 3개로
이루어진 건괘(乾卦: ☰)는 3, 음효 1개와 양효 2
개로 만들어진 태괘(兌卦: ☱)는 4, 이괘는 4, 진괘
는 5, 손괘는 4, 감괘는 5, 간괘는 5, 곤괘는 6으로
(그림 5. 참조) 계산하여 모두 합하면 36이 되어
36궁이 된다.²¹⁾

정학순은 「경회루전도」에서 경회루를 건축하
면서 육육양제법을 적용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왕이 거처하는 곳으로
서 응당 하늘과 땅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 과거의 성왕(聖王)들이 모두 이러한 법칙에 따
라서 궁성을 건축했다는 것을 열거함으로써 자신
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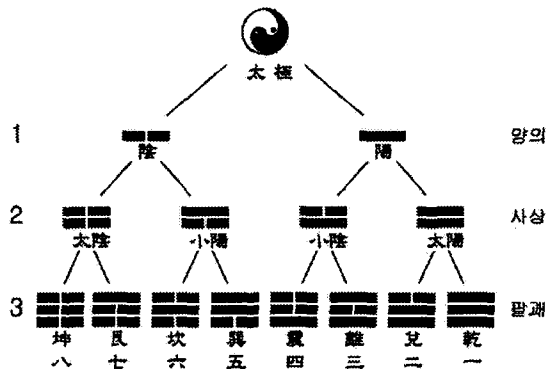


그림 5. 복희팔괘차서도

古聖王，法象之宮，多取象於天地。
夏之世室，必有五室者，取象於五行也。
殷之重屋，必有四阿者，取象於四方也。
周之明堂，必有九室者，取象於井田也。
四戶八牕，所以象，四時八風也。
七十二闔，所以象，七十二候也。
王者繼天，立極代天，工順天序，
則其取法，于宮室之間也。
亦宜矣我。²²⁾

위의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옛 성왕들은 모두 궁궐을 짓는데 있어 하늘과
땅의 상을 본뜬 것이 많다. 하나라의 세실은 오

16) 복희역은 문왕역에 대해서 선천역이라 하고, 문왕역은 복
희역에 대해서 후천역이라 하기도 한다.

17) 문화재청, 앞의 책, p.79; 「경회루전도」, 2쪽.

18) 불변괘: 상괘와 하괘가 대칭인 괘.

19) 대가 되는 괘: 뒤집어질 때 서로 같아지는 괘.

20) $1 + 2 + 3 + 4 + 5 + 6 + 7 + 8 = 36$

21) 위의 글은 36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론하며 설명하고 있
다. 64괘의 상수학적(象數學的) 설명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2) 문화재청, 앞의 책, p.78; 「경회루전도」, 1쪽.

실이 있는데, 이는 오행을 본뜬 것이다. 은나라의 중옥은 네 구석이 있는데, 이는 사방을 본뜬 것이다. 주나라의 명당은 구 실이 있는데, 이는 정전을 본뜬 것이고, 사호팔총이라는 것은 사시팔풍을 본뜬 것이며, 72유는 72기후를 본뜬 것이다. 왕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을 대신하여 지극히 세우는 것인데, 하늘의 법칙과 순서에 입각해서 궁실의 칸을 만들었다.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사방, 정전, 사시팔풍 또는 72후도 아니고 36궁이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육육양제법을 적용하게 된 두 번째 이유이다.

‘6’은 물을 성(成)하는 수(數)²³로써 이를 이용하여 화재로부터 경복궁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풀기 위해서는 ‘큰 연못을 구성했다’는 단서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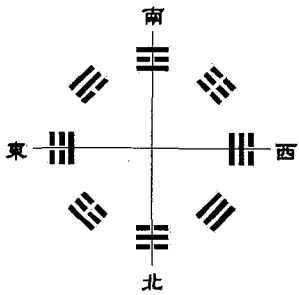


그림 6. 문왕팔괘도

“36궁은 육육을 말하며 육은 (문왕팔괘의 방위 상 위치가) 팔괘 가운데 감괘²⁴)로 매우 큰물²⁵)을 상징하고 있다. 정확순이 발문에서 쓴 것처럼 경회루의 본래 뜻이 불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회루를 건축하는데 따른 이치는 36궁이었던 것이다.”²⁶)

‘6’이라는 숫자는 하도의 성수에서 뽑아낸 것이

- 23) 하도에서 두 점과 세 점의 4방위에 숫자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북쪽은 1과 6, 남쪽은 2와 7, 동쪽은 3과 8, 서쪽은 4와 9로 1, 2, 3, 4는 생수, 6, 7, 8, 9는 성수가 된다.
- 24) 그림 6은 문왕팔괘도의 방위별 팔괘의 배속을 보여주는데, 감괘는 북, 진괘는 동, 이괘는 남, 태괘는 서에 배속되어 있고, 중심에서 외부를 보면서 괘가 그려져 있다.
- 25) 그림 6의 감괘에서 시계방향으로 감괘는 수(水), 간괘는 산(山), 진괘는뢰(雷), 손괘는 풍(風), 이괘는 화(火), 곤괘는 지(地), 태괘는택(澤), 건괘는천(天)이다.

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못의 규모와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36궁은 ‘6의 제곱’으로 얻어지는 숫자로 경회루의 칸잡이 규모를 설명하는 것이다. 연못 그 자체를 ‘6’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것이다. 연못에 담긴 물을 보고 그냥 ‘6’이라고 해석하는 정도이다. 반면에 경회루의 건축을 36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육육양제법에 의한 36궁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2-2 경회루의 배치와 동선 원리

경회루의 규모는 연못의 크기에 맞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회루는 연못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 개의 다리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 연못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루나 정자는 연못의 가장자리 독 근처에 세워지거나 반은 제방에 걸치고 반은 연못에 기둥 하부를 담그게 하여 지지하는 방식으로 세워진다.²⁷⁾ 규모가 크지 않게 하려고 생각했다면 지금 연못의 북쪽에 위치한 하향 정처럼 경회루를 배치하였을 것이다.

경회루를 둘러싸고 있는 연못은 비교적 규모가 크지만 걸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고 하면 그 정도의 규모로 배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못의 동쪽인 근정전에 근접한 곳에 배치한다면 근정전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고 공간의 여유가 없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쉽다. 그 외의 방위에도 대형 누각을 설치하기는 마땅하지 못하다. 더구나 연못이 비교적 대규모 이므로 연못 바깥으로 어느 한쪽에 건물이 들어서게 하고 연못 전체를 비워두는 것 보다는 가능한 연못 속으로 건물을 끌어들여 해결하는 것이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근정전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쪽으로 배치하면서도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물위의 다리를 건너 접근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리를 건너간다는 것은 통과례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회루의 서쪽 넓게 비워진 연못에는 두개의 섬 만세산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경회루가 자리한

26) 문화재청, 앞의 책, p.74.

27) 창덕궁의 부용정과 강릉 선교장의 활래정이 그 사례이다.

섬과 함께 3개의 섬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7. 참조)

君臣相與之義，得矣樓之外環之以池，池圓而象天池，內方之以址址方而象地，外內相和天地相包²⁸⁾

연못이 루를 감싸고 있는 것은 군신이 서로 의를 주고받음과 같은 것이다. 연못이 둥근 것은 하늘의 연못을 본뜬 것이고, 지대(址臺)의 네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안과 밖이 서로 조화롭고, 천지가 서로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못 속에 루가 있는 것은 하늘이 땅을 품고 있는 것이며, 임금이 신하를 품고 있는 것을 상징함이다.²⁹⁾

此義橋列，以三所以象三光也。
門對以兩所，以象兩儀也。
左右二梯各二層，上層六，下層十二，是十有八變而成卦也。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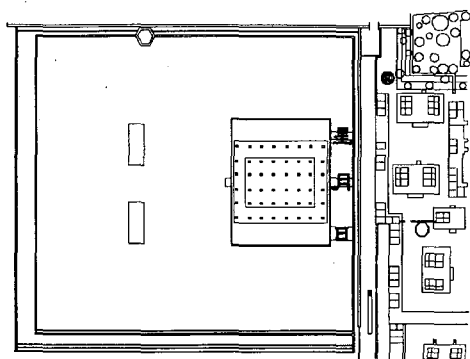


그림 7. 경회루 배치도

근정전 쪽에서 경회루 쪽으로 다리 셋이 열 지어 서있는데, 삼이란 삼광(三光)을 본뜬 것이다. 삼광은 일(日), 월(月), 성신(星辰)을 뜻한다. 세 개의 다리 중에서 남쪽의 것이 나머지 것에 비해서 폭이 넓다. 태양이 들어가는 곳ियो, 임금이 행차

28) 문화재청, 위의 책, p.80; 「경회루전도」, 6쪽.

29) 「경회루전도」에는 연못은 둥글고 지대는 네모난 것이라 기술되어 있으나 지금의 경회루를 감싸고 있는 연못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7. 참조)

30) 문화재청, 위의 책, p.79; 「경회루전도」, 5쪽.

하는 곳이다. 문이 양쪽에 있는데 그것은 양의(兩儀)를 뜻함이다. 양의는 북회역 순차도에서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져 두개로 되는 단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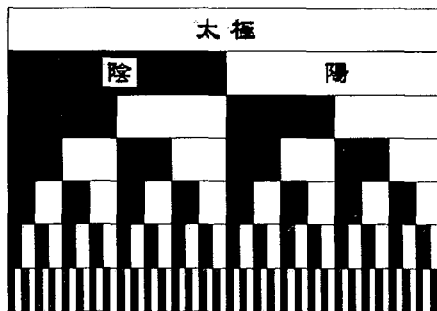


그림 8. 북회 64괘 차서도

「경회루전도」의 경회루삼심육궁지도(그림 1. 참조)에는 동측문에 일출(日出), 서측문에 일입(日入)이라고 적어 태양의 기운이 드나드는 곳임을 상징하고 있다. 중건 당시 기술한대로 출입문이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지금의 경회루에 이러한 문은 없다.

「경회루전도」(와세다대본)상의 계단의 그림을 보면 'ㄱ'자 형태로 꺾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건된 경회루의 계단은 중간 참이 없는 직선 형태를 하고 있다. 「경회루전도」는 계단의 단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원문의 설명에 의하면, 외진 좌우에 상층으로 오르는 사다리가 있는데 두개 층으로 되어 있다. 상층은 6단, 하층은 12단으로 되어 있고, 계단수의 합이 18이므로 10을 제하면 8이 남는데 이것은 8괘를 말한다(6 + 12 = 10 + 8 = 18). 계단의 중간에 참을 두고 아래와 위의 디딤판의 수도 숫자 6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회루전도」에 나타난 그림상의 계단(그림 1., 그림 2. 참조)은 기둥 부분을 뚫고 지나가게 그려져 있고 계단의 디딤판수도 실제보다 많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정확순이 건축에 관한 깊이 있는 식견을 가진 건축가라기보다는 동양철학에 조예가 깊은 유학자임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실측조사보고서 도면³¹⁾에 의하면 최하단의 디딤대를 제외하고 총 19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계단수와 형태가 조금 다르게 건축되었음³²⁾을 알 수 있다.

31) 문화재청, 위의 책, p.154.

2-3 평면계획, 창호계획

경회루는 정면 7칸, 측면 5칸의 평면형을 가진 건축물이다. 면적의 단위로서 칸의 수를 세면 35칸(7 x 5)이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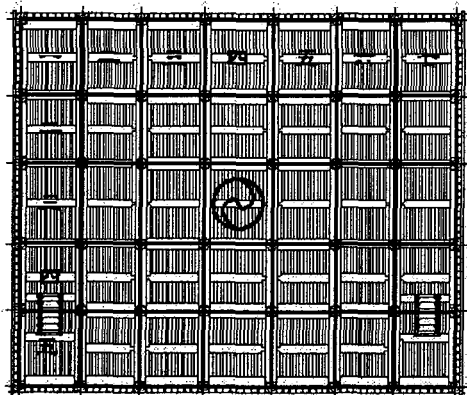


그림 9. 경회루 평면도

정학순은 평면의 가장 중심이 되는 3칸을 일중(一重), 그 다음 겹이 이중(二重), 그 다음 겹이 삼중(三重)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경회루는 일중의 3칸에 자리 잡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기둥열이 삼중의 겹으로 둘러쳐진 형식이 된다. 이것을 두고 하도(河圖)를 본뜬 것이라고 말한다.³³⁾

制一重內三間，則正堂象天地人三才，
柱用八以象八卦，每間牖用四是三十二象，
第二重十二間，卽軒也，象十二月，
柱用十六取十六象，每間牖用四是六十四卦之象
內二重柱數分排以四六
已上第上層
中宮十五間以象五十土
第三重二十間卽廊廡也，
柱用二十四以象二十四方及逐月節候
第三重柱數亦合排以四六
已上第二層³⁴⁾

32) 계단 수의 변화는 최근 복원 과정에서 임의로 조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3) 문화재청, 앞의 책, p.81; 「경회루전도」, 10쪽 작은 글씨: 自中宮視之四方各有三重便，是一河圖，하도의 경우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34) 문화재청, 위의 책, p.80; 「경회루전도」, 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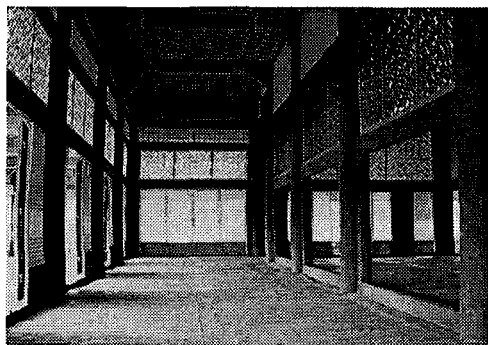


그림 10. 일중(一重: 정당), 이중(二重: 헌) 창호 현황

첫 번째 겹은 중심의 삼칸(三間)이다. 그것은 정당(正堂)이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표상하기 때문이다(그림 1, 그림 2. 참조). 기둥은 8개가 세워졌는데 팔괘(八卦)를 뜻하는 것이고, 매 칸의 들창은 사시(四時)를 뜻하여 32개의 상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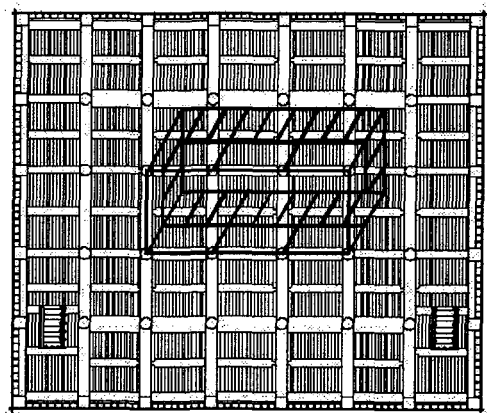


그림 11. 일중(一重)의 창호 가구

길이의 단위로 정당(正堂)을 둘러싸는 칸수는 앞뒤 각 3칸, 좌우 각 1칸 하면 모두 8칸(3 + 3 + 1 + 1 = 8)이 된다. 각각의 칸 위에 고정창 작은 것 3개, 아래 크게 개방된 개구부 1개가 설치되어 있다. 각 칸마다 4개씩 8칸이 되므로 32개(4 x 8)가 된다는 것이다. 팔괘를 뜻하는 기둥 8개에 대해 4개씩의 창호가 배속되어 모두 32개의 창호가 되었다.

두 번째 겹은 12칸으로 헌(軒)이다. 헌의 12칸은 12개월을 말한다. 기둥은 16개인데 16상을 취했다. 여기서 16상이란 복희64괘차서도에서 팔괘다음 단계를 말한다. 매 칸 4개씩의 들창은 64괘를 뜻한

다. 이중(二重)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 수는 16개이며 각 칸의 창호 수는 4개이다. 따라서 64개(16 x 4)가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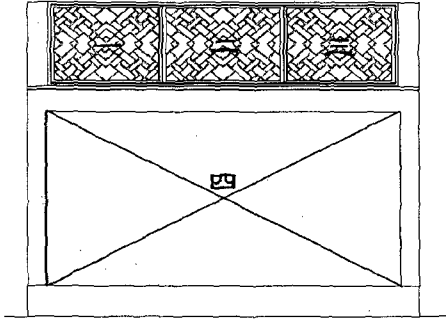


그림 12. 일중(一重: 정당) 창호 입면

두 번째 겹의 기둥 수는 측면 4개, 정면 6개를 분배한 것이다. 앞의 일중(一重)에서는 칸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창호를 모두 계산에 넣어서 32개의 창호라고 기술하였으나 이중(二重)에서는 역시 기둥의 수와 창호의 수를 곱하였는데 창호의 수에 있어서도 위의 창호(3개의 불박이 창호)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아래의 4개의 창호만 계산에 넣어 64개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각 칸 위의 3개의 창에 두 번째 겹 기둥사이의 16칸을 곱하면 48이 된다. 48은 사시팔풍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경희루전도」에서는 창호의 개수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두고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호는 건축물의 입면구성과 출입과 채광, 환기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현대의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창호의 수 보다는 창호의 크기와 형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희루전도」에서 창호의 개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호팔창소이상사시팔풍(四戶八牕所以象四時八風), 칠십이유소이상칠십이후(七十二牕所以象七十二候)’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해볼 때 전통건축에서 창호를 계획함에 있어서 창호의 크기와 모양도 중요하지만 개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궁 15칸은 5, 10 토(土)를 말한다는 것은 하도(河圖)상의 가운데에 위치한 생수(生數)가 5, 성수(成數)가 10이 되며 오행의 배속에 따라 토(土)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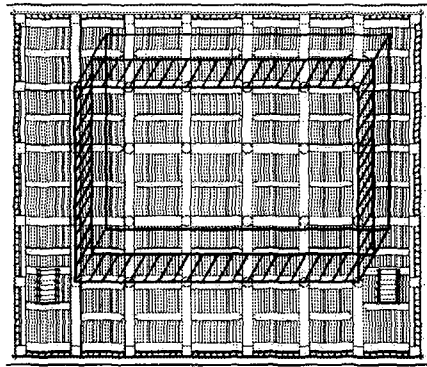


그림 13. 이중(二重: 헌) 창호 가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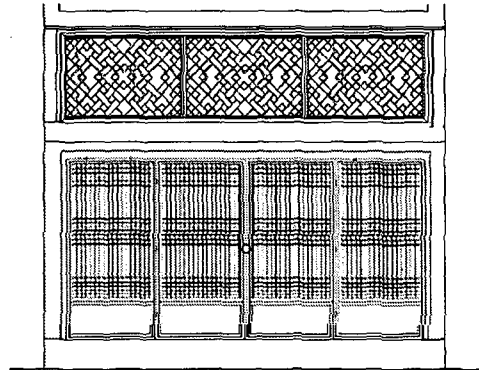


그림 14. 이중(二重: 헌) 창호 입면도

세 번째 겹은 20칸인데 낭무(廊廡)이다. 기둥은 24개인데 이는 24방 또는 24절후를 상징한다. 제3층의 기둥 수(6, 8)는 4, 6을 합배(合倍)한 수이다. 그래서 평면상의 전체 기둥의 수는 42개(6 x 7 = 42)가 된다. 따라서 기둥의 수는 육육양제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가 된다.

大易之六六宮，當爲三十六，而合爲三十五間者，其義何居盖取象，乎太極之虛一也。大衍數已有。³⁵⁾

전체의 면적상의 칸수는 35칸(3 + 12 + 20 = 35)이 된다. 육육양제법에 의해 36궁의 36칸이 되어야 하는데 왜 35칸이 되었을까? 역의 육육궁은 당연히 삼십육궁인데, 합이 35칸이라고 한 것은 ‘하(虛)’가 계산에서 제외된 것이며, 제외된 것이 ‘허일(虛一)’이며 태극이라는 것이다. 허일이라는 것은 숫자 ‘6’을 운용하기 위한 근본이고 이미 대연수(大衍數)³⁶⁾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5) 문화재청, 위의 책, p.80; 「경희루전도」, 9쪽 작은 글씨.

실측도의 루 2층의 평면 단차를 보면 정당(正堂), 헌(軒), 낭무(廊廡)의 순으로 낮아지는 단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5. 참조). 제일 가운데의 높은 곳을 태극이라 할 때, 태극에서 양의(兩儀)로 양의에서 사상(四象)으로 사상에서 팔괘(八卦)로 팔괘에서 계속하여 64괘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15. 참조)

정확순의 「경회루전도」에는 기둥 수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대들보의 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측도면을 근거로 대들보의 수를 헤아려 보면 네 모서리의 추녀까지 합해서 90개가 된다(그림 16. 참조). 90이라는 수는 9 곱하기 10으로서 9에서 비롯되는 수로 볼 수 있다. 기둥의 숫자는 6이라는 수와 관련되어 있고 보의 숫자는 9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는 왜 육육양제법을 따르지 않고 6이라는 수와 대응되는 9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은 치수계획에서 양가용구(樑架用九)로 설명되고 있다.

2-4 치수계획, 비보계획

(1) 치수계획

앞에서는 육육양제법이 평면의 모양, 칸수, 기둥의 개수, 창호의 수 등에 적용된 것을 살펴보았다. 정확순은 「경회루전도」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육육양제법의 논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부재의 높이와 너비의 치수를 정함에 있어서 6과 관련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六其柱明本數也, 內二重十五間石柱, 爲四六木柱, 加其上長六六尺, 外一重二十間石柱, 亦四六木柱長三六尺, 間架廣與長桶, 皆尺二六小樑, 如間架尺大樑三小樑之數, 爲六六尺, 每間椽用二六翹, 翹檐四角各椽三六檼題, 亦如其數, 藻梲用層六, 軒用二六, 梯用三六, 尾溝隨濶狹, 欄檻適長短, 皆不離於六摠水數也.³⁷⁾

36) 소길 저, 김수길 외 역, 『오행대의』 (대유학당, 1998, p.36), 기(氣)는 합쳐지는 것이 있고, 합쳐지면 마땅히 떨어내야 하니, 대연수에서 다섯을 덜었다. 그러므로 50이 된다. 그 쓰임(用)에 있어서도 50에서 하나를 빼기 때문에 49가 되니, 합쳐 어울려지지 않는 것은 덜 수 없다.

37) 문화재청, 앞의 책, p.82; 「경회루전도」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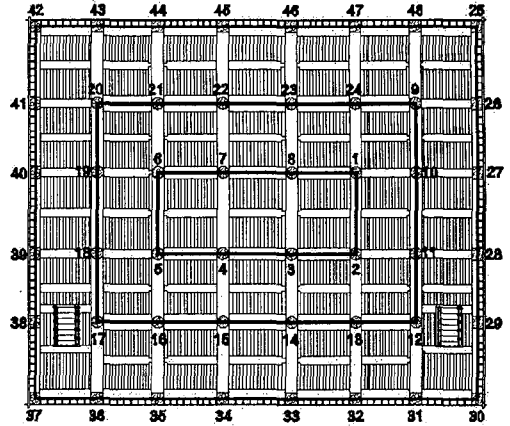


그림 15. 기둥 배치 평면도

樑架用九

小樑二六尺, 大樑六六尺

九者老陽之數, 屬陽而在上, 柱位以六, 六者老陰之數, 屬陰而在下³⁸⁾

육은 기둥수의 기본이다. 안쪽 두 겹의 15칸(一重 3칸 + 二重 12칸)의 기둥 높이는 육육척이다. 일중, 이중의 나무기둥 높이가 12척(6 + 6)이라는 것인데 실측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치수이다.³⁹⁾ 바깥 쪽 삼중(三重) 20칸의 기둥 높이는 9척(3 + 6)이다.

실측결과에 의하면, 일중과 이중의 기둥 높이는 대략 21척, 삼중기둥 높이는 대략 12척으로 되어 있다. 또한 매 칸의 폭은 이육척이라고 동일한 폭과 깊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측도에는 중심 어칸이 넓고(폭: 17척, 깊이: 20척) 좌우의 어칸(폭: 16척, 깊이: 17척)이 조금 줄어들고 나머지 칸(폭: 15척, 15.5척, 깊이: 19척)은 변화하는 치수를 보여준다.

대들보는 구(九)의 법칙에 따랐다. 모든 것이 육육양제법에 의해서 '6'이라는 수와 관련지어 기술하고 있는데 대들보에서는 '9'라는 수를 가지고 기술하고 있다. '9'는 노양(老陽)의 수, 양은 상(上)에 속하고, '6'은 노음(老陰)의 수, 음은 하(下)에 속한다. 그래서 '9'는 양의 대표수이고 '6'은 음의 대표수가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38) 문화재청, 위의 책, p.81; 「경회루전도」 11쪽.

39) 경회루 실측보고서에서는 1척 = 307mm(1.013곡척)을 경회루 건축의 영조척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 위의 책, p.101.

남)에 있어서 각각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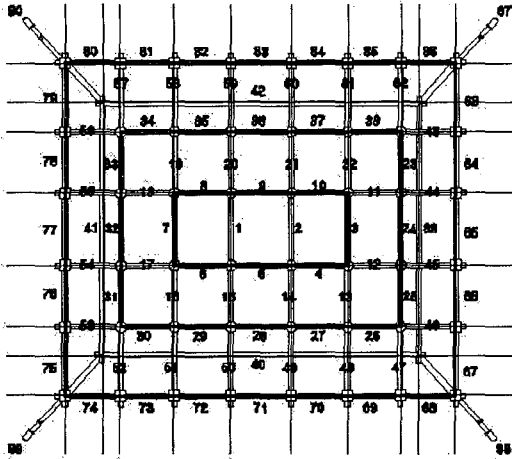


그림 16. 보 가구 양시도

목가구의 높이와 마찬가지로 너비에 있어서도, 소량 모두는 이육척을 사용하고 있다. 3 소량이 하나의 대량척이 되는데 그것이 육육척이 된다. 매칸의 서까래는 이육을 적용했다. 교점사각은 각 서까래의 삼육양제를 적용하였다. 역시 육육양제법이다.

동자기둥은 층육, 현(軒)에는 이육, 제(梯)에는 삼육이 적용되었다. 미구는 넓고 좁은 것에 따르고 난간은 길고 짧은 것이 적당한데 모두 육(六)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아주 미세한 부분의 치수까지도 육육양제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측도면과는 부합하지 않고 실제로 적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회루전도에서 언급한 세부적인 치수가 경회루 건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평면형식, 기둥의 수, 칸수등을 고려하면 초석상부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개념도를 그려낼 수 있다. 이러한 개념도를 바탕으로 하면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보(그림16. 참조)가 걸쳐지고, 기둥사이에는 육육양제법에 의한 창호가 설치되어 상부구조가 실현되는 것이다.

(2) 비보염승

「경회루전도」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동룡(銅龍)에 관한 것이다. 동룡은 육육양제법을 마무리하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경회루전도」의 와세다대본과 중앙도서관본에서는 동룡을 잠수시킨 방위(각각 북과

<와세다대학본>

池之北潛銅龍二，銅者火色，二者火數，潛之于坎六之方以六制二，以水克火，實物于此引氣于彼藏形于內銷影于外此亦磁鐵銅鍾之一理也，且龍者乾九之象，以九配六合造化，而成神變能陰能陽能大能小，以數則屬金(金九)金以生水以德則(龍德)司水，水以制火，此所以取象者也，潛之爲言勿用也，二在下而勿用火無所.⁴⁰⁾

<중앙도서관본>

池之南潛銅龍二，銅者火色，二者火數，龍者乾九之象，乾在先天爲離之本欲制其流，先治其本，是故以龍象乾以九配六，以金生水，以水剋火造化，以成神變也.⁴¹⁾

1997년 경회루 연못을 발굴한 결과 동룡 한마리가 경회루의 북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북희팔패로 보면 남쪽은 건괘의 자리로서 용의 자리가 된다. 용의 수(數)는 '9'로 '6'과 짝을 이루는 수이다. '9'는 하도에서 오행상 배속이 금(金)으로서 성수(成數)이며 '4'는 생수(生數)가 된다.(그림 4. 참조) 결과적으로 남쪽 연못에 용을 집어넣은 것은 성(成)한 금(金) 기운(氣運)을 쌍(雙)으로 물속에 넣음으로써 금생수(金生水)의 조화⁴²⁾로 더욱 수 기운을 성하게 하여 남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 기운을 누르고자 함이다. 연못에 넣은 용을 동(銅)으로 제작한 것은 오행상의 금 기운을 바탕에 삼기 위함이며, 형상을 용으로 한 것은 '9'라는 성수(成數)로써 금 기운을 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문왕팔패로 보면 북쪽은 물을 뜻하는 감괘의 자리이다. 또한 하도(河圖)상의 숫자 6이 수(水)의 성수(成數)로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용을 2마리 집어넣은 것은 2라는 숫자가

40) 문화재청, 앞의 책, p.82; 「경회루전도」, 12쪽.

41) 김동욱, 앞의 글, p.49.

42) 오행의 구성 요소는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5 가지를 말하는데, 방위별로 목이 동, 화가 남, 토가 중앙, 금이 서, 수가 북에 배속이 된다. 또한 오행의 생(生)하는 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生水, 수생목이 되고, 극(剋)하는 관계는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가 된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길, 앞의 책을 참조할 것.

화(火) 기운의 생수(生數)이기 때문에 큰물이 있는 수(水)의 성수(成數) 자리에 불 기운의 생수(生數)인 2를 집어넣어 불 기운이 생하는 것을 초기에 진압하자는 것이며, 생수로서 성수를 더욱 성하게 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극화(水剋火)의 원리로 화 기운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는 의도이다. 동(銅)이라는 재료는 금속이기 때문에 재료적 속성으로는 금 기운이 되고, 색깔로 볼 때는 붉은 색으로 화 기운으로 간주된다. 금 기운이 될 때는 숫자 '9'와 연관시켜 금생수의 조화원리가 적용된다. 화 기운이 될 때는 숫자 '2'와 연관시켜 수극화의 원리가 적용된다. 결국 화 기운을 뜻하는 두 마리의 붉은 동룡이 물 기운을 더욱 성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발굴결과를 볼 때 동룡에 관한 내용에서는 와세다본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⁴³⁾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수학(象數學)과 오행논리상으로 판단해 볼 때 불기운을 잡는 장치로서 동룡이 남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느 본이든 붉은 색을 띤 금속 재료인 동(銅)을 이용하여 두 마리 용을 제작하여 2와 9의 숫자와 연관시킴으로써 오행상의 금생수(金生水), 또는 수극화(水剋火)의 원리로 물을 풍부하게 하고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연못이 경회루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경회루 자체를 화재에서 보호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경복궁 전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육육양제법에 의한 경회루를 연못 안에 배치함으로써 물을 뜻하는 '6'이라는 수를 크게 만들어 연못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회루는 건축물이긴 하지만 '6'이라는 수(數)와 동일시되며, 36궁의 규모는 숫자 '6'의 제공으로서 연못의 물과 합쳐져서 더 큰 물 기운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숫자 2 또는 9와 동일시되는 동룡과 숫자 6과 동일시되는 경회루는 연못의 물 기운을 제공, 또는 세제공으로 키우기

43) 그렇지만 와세다본이 중앙도서관본에 비해서 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기록상으로는 두 마리의 용을 집어넣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본다. 첫째, 와세다본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쪽에 두 마리를 넣었는데 한 마리가 유실된 경우이다. 둘째, 두 마리의 용을 하나는 남쪽에 또 하나는 북쪽에 넣었는데 남쪽의 것이 유실된 경우이다. 두 번째의 경우라면 어느 본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진다.

위해 연못에 투입된 일종의 촉진제인 것이다. 동룡은 불의 강한 기운을 누르기 위한 염승(厭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경회루는 연못의 수 기운을 더욱 보강시키는 비보(裨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못의 크기는 기능과 안전의 절대적인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연못과 관련하여 지어질 경회루의 규모였는데, 이전과 같은 규모로 작게 하면 능력있는 건축가로서 자신에게 용납되지 않고, 크게 하면 건축을 이해 못하는 반대자들에게서 쏟아질 비난과 책임추궁이 걱정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박자청은 궁리 끝에 당시의 상식적 틀 속에서 멋지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게 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골칫거리인 경회루를 육육양제법으로 포장하여 연못 속에다 과감하게 집어넣는 의외의 강수를 생각해낸 것이다.

3. 결론

이상 경회루의 계획원리를 「경회루전도」와 경회루실측도면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살펴보았다. 「경회루전도」를 집필한 동양철학자[정학순]의 입장과 더 나아가 경회루를 최초 계획한 건축가[박자청]의 입장에서 건축계획적 측면의 여러 사항을 검토해보는 것이 「경회루전도」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경회루는 건축물 자체로만 건축된 것이 아니고 주변의 연못과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더 넓게는 경복궁 전체와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회루라는 건축물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기능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 목조건축물의 하나인 경회루 자체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지만 '육육양제법'이라는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논리가 실제로 어떻게 건축물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전통건축물의 건축내용의 하나로서 건축을 지배하고 있는 계획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의 건축행위에 있어서도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경회루전도」에서 언급된 육육양제법은 기능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육육양제법은

옛 성왕들의 법식을 따르되 그 시대와 그 지역에 적합한 독특한 형식의 궁궐형식을 창조하고자하는 노력 속에서 등장하였다. 육육양제법이란 일종의 기본단위 모듈과 같은 것으로서 6이라는 숫자가 가감승제(加減乘除)의 방법으로 전체 건축을 통괄하는 것을 말한다. '6'이 가진 숫자의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 확인된 육육양제법과 관련된 경회루 건축의 주요부분과 수를 정리하면, 3(정방의 칸수), 6(계단 수 : 계단참의 상부), 9(보의 개수), 12(계단 수, 현의 칸수), 15(중궁 칸수), 18(계단 단수의 합), 24(삼중 기둥 수), 36(전체 칸수), 42(전체 기둥 수), 48(3중의 상부 창호)등이다. 그 외에도 2, 8, 16, 32, 64가 기술되고 있는데 복회 64패차서도에 의해 2진법으로 연속되어 만들어지는 수이다. 복회의 패를 선천패로 볼 때 그것을 본으로 삼고 육육양제법을 펼쳐나갔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즉, 복회패는 체(體)이고, 육육양제법은 용(用)인 셈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경회루가 지어질 당시나 중건 당시에 '6'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6, 9, 2의 숫자에 대한 의미는 괘(卦)의 상수학적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지식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공유되고 상식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회루의 건축에 소위 '육육양제법'이 적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이 주역의 괘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상수학(象數學)이 의리학(義理學)과 더불어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육육양제법이 서구의 건축론과 같이 하나의 건축이론으로서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나 하는 문제는 실제 설계에서 여러 적용 사례들이 나온 다음에 거론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육육양제법이 주 초석의 배열상태만을 근거로 상부구조까지 추정 복원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수학은 처음 출발점에서의 하나의 단서만 있으면 연속적인 관련성을 갖고 전개되는 특성이 있다. 상수역학은 그림과 수를 활용하여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건축과의 관련성을 가질 잠재력이 풍부하다. 경회루는 상수학이 적용된 건축물이

고 그래서 초석의 배열만으로도 상부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상수학의 논리에 따라 경회루전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보의 구조를 밝혀낸 것은 상부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 경회루는 한국전통건축의 내용이 '관계성'을 중시하는 건축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이다.

참고문헌

1. 「慶會樓-實測調査 및 修理工事報告書」, 서울: 문화재청, 2000., 8.
2. 金東旭, 「慶會樓-韓國建築과 周易의 原理」, 『건축문화』, 서울: 건축문화사, 1983. 10. pp.42-52.
3. 소길 저, 김수길 외 역, 『오행대의』, 대우학당, 1998.

그림출처

1. 본문 그림 중 그림 7, 9, 11, 12, 13, 14, 15, 16은 문화재청, 「慶會樓-實測調査 및 修理工事報告書」, 실측도면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2. 본문 그림 중 그림 1, 2, 10은 문화재청, 「慶會樓-實測調査 및 修理工事報告書」의 그림을 옮겨온 것임.
3. 나머지 그림은 필자가 작성한 것임.

On the Architecturally Planned Logic System of Gyeonghoeru Pavilion in Gyeongbokgung Palace

- Concentrating on The Book of Gyeonghoeru Pavilion (慶會樓全圖)
written by Jeong Haksun -

Lee, Sang-Ha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Zho, In-Choul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lates to the architectural planning principle of Gyeonghoeru pavilion, one of the major buildings in Gyeongbokgung palace. The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Book of Gyeonghoeru Pavilion written by Jeong Haksun in 1865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Gyeonghoeru pavili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principle of Gyeonghoeru pavilion disclosed in The Book of Gyeonghoeru Pavilion appears to be "the method of expanding with six by six system". "The method of expanding with six by six system" means a way of continuously extending the number related to 6 by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and reflecting to architecture, having number 6 as the basic number. Number 6 means a large amount of water in East Asian philosophy. Applying "the method of expanding with six by six system" to the architecture of Gyeonghoeru includes an intention to prevent fire in a way of a type of incantation because Korean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are weak to fire. Since Gyeonghoeru is surrounded by a pond and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number 6 having a strength of water, it was believed that it could be safe from fire.

This study compares the contents disclosed in The Book of Gyeonghoeru Pavilion with the construction of Gyeonghoeru to find out how the number 6 was applied to the overall construction of Gyeonghoeru. From the fact that the total number of kan of Gyeonghoeru is 36 (6 x 6), the number of pillars is 42 (6 x 7), and the number of windows and doors is multiples of 6,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number 6 is deeply related to the overall construction of Gyeonghoeru.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of Gyeonghoeru can be explained by "the method of expanding with six by six system", The Book of Gyeonghoeru Pavilion also discloses parts where Diagram of Hotu, Later Heaven Arrangement, and Arrangement of 64 Hexagrams are applied. Therefrom, it has been found out that Gyeonghoeru pavilion was constructed by applying the principles of East Asian philosophy based on The Book of Changes.

keywords: Gyeonghoeru pavilion, The Book of Gyeonghoeru pavilion, Jeong Haksun, feng-shui, The Book of Changes, method of expanding with six by six system
